

■ 업무사례 ■

지평지성, 전국 교육청을 대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전국 교육청(서울특별시 외 4)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를 한 사건에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파기되었음에도 환송심에서 다른 사유로 다시 승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도 학부모 패소(2013. 4. 24.)
- 헤럴드경제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또 기각... "징수처분 유효"(2013. 4. 24.)
- 노컷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달라" 서울시 등 상대 소송낸 학부모들 패소(2013. 4. 24.)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